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28(금) ~ 2025.4.3(목)

제공일시 2025 4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28(금) ~ 2025.4.3(목)

제공일시 2025 4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글로벌 정책

### 1.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자유화율 1%→0.1%로 축소

-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피해 저렴한 철강이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무관세로 EU에 수입할 수 있는 철강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자유화율(liberalisation rate)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축소함. 아울러, EU 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미사용 쿼터를 EU 회원국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 역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함

-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EU 철강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숨 쉴 틈(breathing space)'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힘

[\(이데일리 2025.4.2\)](#)

### 2. 美 25개주, 소형모듈·초소형 원자로 원전 유치 경쟁...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나서

- 미국 각 주 정부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격이 더 싼 소형모듈원자로(SMR) 또는 초소형원자로(microreactor) 원전 유치 경쟁을 하고 있음. AP 통신은 3월 29일(현지시각) 미국 각 주 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규제 장벽 제거를 통해 차세대 원전 건설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함

-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각 주가 원전을 믿을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 모델로 여기고 있다고 AP가 전함

- 미국 상업용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25개 주가 첨단 원전 건설 지원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쳤고, 주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200개가 넘음

[\(글로벌이코노믹 2025.3.30\)](#)

### 3. 獨, 에너지 전환 선도 위한 5천억유로 특별 기금 마련

-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국방 강화를 위해 총 5000억유로(약 797조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마련함. 이 중 1000억유로(약 159조원)는 기후 행동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독일이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선도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연방하원은 최근 특별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독일 헌법에 명시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침

[\(투데이에너지 2025.3.31\)](#)

## 국내 정책

### 1. '美 상호관세' 앞두고 만난 한일중 통상장관 "3국 FTA 추진 협력"

- 한·일·중 경제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동남아시아 등과 함께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 분야 국제 다자 협의체에서도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일중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열린 '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국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함
- 3국은 향후 △WTO 개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협력 △오사카·간사이 세계 박람회(EXPO), 2025년 한국과 2026년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적 개최 협력 등을 합의함

[\(뉴스1 2025.3.30\)](#)

### 2.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첫발... 2028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

-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딤
-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방침임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4일 밝힘
-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임

[\(에너지경제 2025.4.1\)](#)

### 3. 김윤상 기재차관, 칠레 IDB 연차총회 참석...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조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월 26~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65차 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함. IDB는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임
- 김 차관은 연차총회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의 IDB 개혁 과제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함
- 또, 의장국인 칠레의 마리오 쿨렐 재무부 장관과 만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관련 양국의 협력을 강조함. 신재생에너지, IT 분야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분야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함.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칠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뉴스핌 2025.3.31\)](#)

## 글로벌 기업

### 1. 스텔란티스, 2025년에도 테슬라 배출권 구매... EU 완화에도 규제 대응 총력

- 스텔란티스가 2025년에도 테슬라가 주도하는 탄소배출권 풀(Pool)에 참여해 배출권을 매수할 계획임
- 로이터는 30일 유럽연합(EU)이 최근 자동차 제조사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기한을 3년 평균 기준으로 완화했음에도, 스텔란티스는 여전히 테슬라의 배출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함
- 스텔란티스 유럽사업 책임자인 장-필립 임파라토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2025년에도 테슬라로부터 매수한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I'll use everything)”고 밝힘

[\(임팩트온 2025.4.1\)](#)

### 2. 美 네바다 '태커패스' 리튬 광산 개발 확정

- 캐나다 광산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Lithium Americas)가 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태커패스(Thacker Pass) 리튬 광산 1단계 개발을 위한 최종 투자 결정(FID)을 내렸다”고 발표함. 미국 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 중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임
- 태커패스 광산은 북미 최대 리튬 매장지로, 총 사업비는 22억7000만달러(약 3조2900억원)에 달함.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4만 톤의 배터리용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임

[\(더구루 2025.4.2\)](#)

### 3. 릴라이언스-BP, 잇단 해저 계약 추진... 인도 심해 가스전 'R-클러스터' 확장 박차

-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와 영국 에너지 대기업 BP가 인도 동해안 크리슈나 고다바리 분지의 핵심 심해 가스 프로젝트 확장을 위해 잇따라 해저 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전체 가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KG-D6 광구의 생산량을 더욱 늘릴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인도 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2025.3.29\)](#)

### 4. 엑스에너지, 텍사스에 SMR 건설 허가 신청... 두산 수주 속도 올린다

-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엑스에너지(X-energy)가 미국 텍사스주 SMR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함. SMR 초도호기 사업 발주처인 글로벌 화공플랜트 기업 다우(Dow)는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롱 모트(Long Mott)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신청서를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
- 다우와 엑스에너지는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허가와 본격적인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엑스에너지의 원자료를 비롯한 주요 기자재 공급 파트너인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마이데일리 2025.4.1\)](#)

## 국내 기업

### 1. 삼성물산·서부발전, 오만 가스 발전소 입찰... 中·日과 경쟁

- 삼성물산과 한국서부발전이 오만 가스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함. 중국,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 오만수전력공사(Nama PWP)는 3월 31일(현지시간) 가스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참가의향서(EOI) 제출 기업 명단을 공개함
- 명단에는 △삼성물산 △서부발전 △ACWA 파워 △마루베니 코퍼레이션 △릴라이언스 파워 △샘코프 유틸리티 △스미모토 코퍼레이션 △네브라스 파워 △알 가님 인터내셔널 △에티하드 수전력청 △선전 에너지 그룹 △알 조마이 에너지 앤 워터 등 12개 기업이 포함됨
- 오만수전력공사는 2분기 중 사전 자격을 갖춘 업체에 제안요청서(RFP)를 전달할 예정임

[\(더구루 2025.4.1\)](#)

### 2. 현대모비스, 저탄소 알루미늄 부품제조에 적용

- 현대모비스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을 부품 제조에 활용함. 현대모비스는 2일 에미리트글로벌알루미늄(EGA)과 계약을 체결해 저탄소 알루미늄 1만5000t을 확보했다고 밝힘
- 현대모비스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새시 등 주요 부품 제조에 활용해 각국 정부의 환경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매일경제 2025.4.2\)](#)

### 3. GS엔텍, 세계 최대 롤벤딩 제조사와 공급 계약

- 현GS엔텍이 세계 최대 벤딩롤 제조사인 이탈리아 다비(Davi)로부터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 장비를 조달함. 30일 다비에 따르면, 회사는 GS엔텍에 플레이트 롤링 머신 2대(MCB ZA45·MAV 45-520)를 공급함.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음
- 오는 7월 내부 테스트와 공장 수락 테스트(FAT)를 진행할 예정임. GS엔텍은 신규 장비를 통해 제조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더구루 2025.3.30\)](#)

### 4. SK, 싱가포르 SPC 설립... 최대원식 탄소감축모델 '본격화'

- SK그룹이 싱가포르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SPC 설립을 계기로 SK가 그동안 강조해 온 첨단 기술 기반의 탄소 감축 모델(EPCM)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 EPCM은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향후 발행될 탄소배출권을 사전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술 기반의 감축 프로젝트를 실행한 뒤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구조임

[\(뉴스토마토 2025.4.1\)](#)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3.28(금) ~ 2025.4.3(목)

제공일시 2025 4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 백악관, 심해 채굴 신속 추진 위한 행정명령 검토... 국제사회 우려 고조

- 미국 백악관이 심해 채굴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음
-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해 채굴 명령은 채굴 기업들이 국제해저기구(ISA)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임
- 이번 검토는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심해 채굴 기업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이하 TMC)가 미국에 탐사 허가와 상업적 회수 허가를 신청하고 미국 규제 기관과 논의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음
- 국제해저기구는 165개국 이상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4년에 설립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음
- 해당 명령이 서명될 경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니켈, 구리 및 기타 핵심광물의 국제 매장지를 개발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될 것으로 여겨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내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바 있음
-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광산 기업들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심해 채굴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임. 소식통은 “현재 이러한 계획은 논의 중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음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코발트, 구리, 니켈, 망간과 같은 광물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산업계는 해저 광물에 주목해왔음
- 업계는 심해 채굴이 육상 채굴보다 비용이 효율적이고 환경 영향이 적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없음. 노르웨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심해 채굴을 시도했으나 환경운동가, 과학자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음
-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에서의 모든 채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0건 이상의 탐사 허가를 발급했지만 상업적 채굴 허가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음
- 현재 탐사의 대부분은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45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의 해저 4000~6000미터 깊이에서 진행되고 있음
- 캐나다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심해 채굴에 대한 금지, 일시 중단 또는 유예 조치를 요구했음. 볼보, BMW, 폭스바겐, 구글, 삼성을 포함해 태양광 패널 기업인 퍼스트솔라는 해저 광물 사용 중단을 약속했음
-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국제 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어떤 국가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과학계에서는 심해 광물이 형성되는 데 수백만 년이 소요되며, 채굴로 인해 소음, 빛, 공해, 심각한 먼지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이로 인해 심해 채굴에 대한 승인이 계속 늦어지자, 일부 기업이 미국 법규를 이용해 국제해저기구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메탈스 컴퍼니 외에도 심해 채굴 허가 진행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많음. 대표적으로 미국의 임파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 러시아의 유즈모르게올로기야(JSC Yuzhmorgeologiya), 자메이카의 블루 미네랄스 자메이카(Blue Minerals Jamaica), 중국의 차이나 메탈스(China Minmetals), 키리바시 공화국(Kiribati)의 마라와 연구 탐사(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등임

[\(임팩트온 2025.4.2\)](#)